

## Money moves first

- by 제현주

\_ 임팩트 투자와 ESG, 자본의 새로운 생존전략

\_ 1부 돈의 방향이 바뀐다.

\_ 1장. 자본시장의 진화

1. 블랙록이 쏘아올린 신호탄: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로 자본주의가 진화한다. 장기적 이익에 복무하라
2. 30년을 책임지는 투자자라면: EGS열풍, 초장기적 자산 수탁인이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.
3. EGS 투자와 임팩트 투자: 가파르게 높아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, 적극성이 성패를 가를 것이다.
4. 빅머니, 굿머니: 영향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감을 인식할 때, 큰돈은 좋은 돈이 된다.  
→ 큰 돈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. → 다른 자본, 다른 소비자들의 등장.
5. 임팩트와 수익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논쟁: 트레이드오프?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다.

\_ 2장 경제적 인간의 사회적 동기

- 경제적 인간은 사회적 인간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, 현실의 개인 안에서 통합된다. 직업과 소비가 정체성의 일부라면, 비즈니스와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.
6. 투자 시장의 밀레니얼 모먼트: 직업과 소비가 정체성의 일부라면, 비즈니스와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. → 투자가 정체성을 드러낸다. → 가치가 견인하는 사업
  7. 바람은 우리 뒤에서 불어온다.: 사회적 요구가 시장의 흐름이 되면 그때부터는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된다. → 사회적 요구가 시장의 흐름이 될 때.
  8. 창업자들을 이끈 한가지: 사회와 시장은 따로 있지 않으며 그 둘은 상호 강화하는 통합된 장이다.
  9. 저가 헬스클럽의 마켓 임팩트: 선도적인 임팩트 비즈니스는 시장 구조를 바꾼다. → '더 짐'의 성공이 가져온 마켓 임팩트
  10. 최적화 게임: (예. <인사이드 빌 게이츠(Insider Bill's Brain)>) → 단기적인 이익이 비즈니스와 머니 게임에서 최선의 합리로 보인다면 계산법을 점검해볼 때다. → "나는 이 기업은, 이 사회는 적든 크든, 이 자원을 들여 풀 가치가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가?" → "내 인생, 또는 조직 구성원의 인생에서 이런 시간을 들여 감당할 가치가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고

있는가?"

11. 윤리적인 비즈니스의 조건: 사회와 시장이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한다면 비즈니스는 오래 돈을 벌기 위해 필연적으로 윤리를 택한다.

## \_ 2부 똑똑한 돈이 지향하는 미래

### \_ 3장 기후시대의 리스크와 기회

12. 우리의 3.5%는 어디에 있을까: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. 기후 변화는 윤리가 아니라 실리의 문제다. →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인류가 지닌 진화상의 약점이다. 3.5%만 완벽히 인식하면 사회의 상식이 전환하기 시작한다.
13. 자본 시장의 경고, 기후 변화에 대응하라.: 돈은 언제나 가장 기민하게 움직인다.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다. → 위기에서 기회를 먼저 감지하는 자본시장의 센서
14. 거대한 기후 시장이 열린다.: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, 새로운 시장의 조짐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
15. 그물로 만든 스케이트보드: 버려진 것들로부터 탄생한 가장 쿨한 스타일 → 파타고니아, 부레오, 노보루프, 아코플레닝, 올버즈 등
16. 과거와의 전쟁, 카본테크: 탄소 포집 기술부터 재활용까지, 넷제로라는 난제를 타개할 돌파구 → 스위스 클라임웍스(탄소 포집 1세대 기업), 캐나다 카본엔지니어링, 카본 익스프라이즈(포집 이산화탄소의 제품화 경쟁)
17. 지구와 사람에 투자하는 은행: 지속 가능한 금융을 꿈꾸는 트리오도스 은행의 포트폴리오. → 그린초이스(네덜란드 풍력 발전저장용 ESS), 엘리움(프랑스 태양광 발전), → 트리오도스 "100% 지속 가능한 긍정적인 변화에만 자금을 공급한다.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5%이상 생산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."
18. 청바지 한 벌의 진짜 가격: 산더미처럼 쌓인 의류 쓰레기, 패스트 패션에 환경 청구서가 날아든다.

### \_ 4장 지구인을 먹이는 새로운 방법

19. 푸드테크의 부상: 기후 위기의 해법 중 하나가,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 여기에 있다.
20. 버려지는 식품에서 비즈니스를 발견한 사람들: 진화하는 테크놀로지, 공유와 재활용에서 답을 찾다. → 영국의 올리오, 미국의 어필사이언스 ( 식물 유기물에서 시용 코팅제를 개발), 미국의 임퍼펙트푸드(못난이 푸드 거래), 스웨덴의 매츠마트, 한국의 라스트오더, 스웨덴의 카르마, 영국의 투곳투고

21. 70억 인류를 위한 식량: 빌 게이츠와 베프 베이조스가 농업에 투자하는 이유. → 록야 (2020년 민간이 주도하는 공유형 스마트 팜 밸리 구축), 이그린 글로벌(마이크로튜버 기술 상용화) → 애크테크 유니콘 시대 [미국 인디고애그리컬처(미생물을 활용한 종자개발), 인디고카본, 플랜티(수직 농작 기술)]

## \_ 5장 원하는 미래를 앞당기는 사람들

: Build Back Better(더 낫게 복원하자)

22. 200년을 기다릴 순 없으니까: 멀린다 게이츠가 젠더 평등에 투자하는 이유 → [나는 오늘날도 내가 만든 일터로 출근합니다.]
23. 젠더 렌즈 투자, 자본의 새로운 균형점: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, 여기에 투자 기회가 숨어있다.
24. 일감을 거래하는 마켓: 새로운 노동의 기준, 인디펜던트 워커를 위한 워크 스타일 솔루션 → [www.catchafire.org](http://www.catchafire.org) , 째각악어, 캐처파이어, 청소연구소, 위콧
25. 인디펜던트 워커의 시대: 커리어의 표준이 바뀌는 시대, 불안과 자유가 공존하는 일의 미래
26. 디지털 교육의 미래: 팬데믹이 드러낸 교육의 민낯, 디지털이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 → 에누마, 킷킷스쿨,